

# 도시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효능감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

## Relations among the Social Activity,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Urban Elderly

이의걸, 조성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Eui-Girl Lee(lee661@hanmail.net), Sung-Sook Cho(sscho49@hoseo.edu)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거주하는 도시노인의 사회활동, 자아효능감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사회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영향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시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에 부분적 차이가 나타났고 둘째, 직업이 있는 경우, 좋은 건강상태, 낮은 연령,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셋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좋은 건강상태, 월생활비가 높은 경우,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인식이 소외감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넷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좋은 건강상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인식이 우울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다섯째, 자아효능감은 사회활동 참여와 소외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도시 노인 | 사회활동 | 자아효능감 | 심리적 복지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ocial activity,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 aged people living in Seoul area. For the study, 396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o analyzed the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activ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oderate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m. The result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artial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satisfaction for their lives was positively affected by vocation, health, youth and the social activity. Third, a spouse, health, income and social activit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loneliness. Forth, a spouse, children, health, more social activit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depression. Finally, the self-efficacy had a moderate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activity and loneliness, and depression respectively.

■ keyword : | Urbanl Elderly | Social Activity | Self-efficacy | Psychological Well-Being |

## 1. 서론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11.4%이며, 2018

년에는 14%로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1%가 되어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

명화는 사회적·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즉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 및 보호 문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와 경제의 활력 저하문제,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문제, 그리고 노인자살이나 고독사 등의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며, 이들 중 만 60세 이후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가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건강이 32.6%, 경제적 어려움이 30.8%, 외로움이 10.2%, 부부, 자녀, 친구의 갈등 및 단절이 15.6%, 배우자와 가족의 건강이 4.5%, 배우자, 가족, 친구의 사망이 3.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44.4%가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5.0%는 동년배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보장분야, 주택보장분야,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재가복지 및 시설복지서비스, 노인상담, 호스피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실버산업, 노인교육, 노인여가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 그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최근 많은 학자들이 성공적 노화관련 연구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결과 성공적 노화는 질병이 없거나 이병성이 없는 상태, 높은 인지능력, 그리고 활기찬 인생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2],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 바람직한 노화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활동적이며 또한 상호유대감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세계 모든 인종들이 공통적으로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들고 있다[3].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의 중요한 요소라는 선행연구들[4-6]을 통해서도 사회참여활동이 삶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40.5%만이 각종 단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을 살펴보면 친목, 사교단체(72.2%), 종교단체

(36.9%), 지역사회모임(17.2%)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14.5%), 시민사회단체(5.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은 전체 노인의 18.2%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음악·연주회(29.2%), 연극·뮤지컬(21.6%), 영화(54.6%), 박물관(29.2%) 등이며,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실태(복수응답)를 살펴보면 TV및 비디오시청(71.4%), 휴식(37.7%), 가사일(31.4%), 종교 활동(17.8%), 스포츠 활동(5.0%)등으로 나타나고 있다[7]. 이와 같은 수치는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실제로 매우 저조하고 그 내용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참여가 노인의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정부나 사회단체의 노력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했던 것에 연유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이에 노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지상태와 그 실태를 알아보고 사회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지정도, 사회참여형태와 실태를 알아보고 사회참여활동이 노인의 성공적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개인의 사회활동참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자하는 것은 현재 노인의 34.0%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52.9%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2),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의 형태와 실태가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도시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도시노인의 사회참여 형태와 그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도시노인의 사회참여인식과 그 형태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도시노인의 사회참여인식과 그 형태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은 조절 역할을 하는가?

다섯 째, 도시노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인식, 형태,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사회활동

사회활동은 사회참여, 사회통합, 사회적지지 등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8].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이란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를 띤 활동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노년기의 사회활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외적인 관계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 관리와 집안일부터 이웃 방문, 종교 활동, 야외운동, 자원봉사나 경제적 활동에 참여 등 노인 자신의 생존과 독립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9]. 특히 은퇴 후의 노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취미활동, 자기개발활동, 단체 활동, 종교 활동,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있어서 사회활동은 그들의 생활 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여가활동이 될 수 있다[10].

노인의 사회활동 유형은 크게 문화·오락 (Cultural-entertainment)활동, 개인성장(Productive-personal growth)활동, 야외운동(Outdoor-physical)활동, 레크리에이션(Recreation-expressive)활동, 친선(Friendship)활동, 단체(Formal group)활동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11], 사회봉사활동, 사교 오락활동, 대중매체이용, 자기개발활동, 종교 활동, 문화 관광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그리고 단순 휴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12]. 그리고 김진옥은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종교 활동, 문화·스포츠·취미 그리고 기타여가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13].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본바 노년기 사회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사회활동과 참여가 지니고 있는 복합성에 기인한다 [14].

한편 노인의 사회활동을 조용하[15]는 크게 경제활동과 자원봉사, 종교단체, 사교단체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활동, 그리고 평생학습, 취미, 클럽활동, 레포츠 등에 참여하는 교육 문화 활동이나, 손자녀 돌보기, 집안 가꾸기 등의 가족공동체활동, TV, 영화보기 등의 단순 소일활동 그리고 목상, 걷기, 쓰기, 글짓기 등의 감성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활동은 생계유지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직업 상실에서 오는 상실감을 치료할 수 있으며, 노인의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16]. 하지만 경제활동은 모든 노인들이 자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활동임으로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사회단체활동 중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17]. 김주현·한경혜[18]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길[19]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종교유무와 삶의 질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종교가 있는 노인들이 없는 노인들에 비해 경제생활만족도, 주거생활만족도, 사회참여만족도 그리고 정신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향숙[2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종교 활동이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었다.

교육 문화활동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1], 노인의 여가 스포츠활동 참가가 스트레스, 자살생각 감소와 같은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2], 그리고 노인의 생활무용참가가 건강상태와 사회적 역할활동 및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등이 있다[23].

한편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의하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활동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노후에 생활만족이나 심리적 복지감을 얻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상실되는 역할활동을 대체할 만한 다른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참여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활동 유형이나 참여의 정도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윤순덕·한경혜는[16] 우리나라 농촌노인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적 활동(경제, 가사, 자녀원조, 친척원조, 이웃친구원조활동)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첫째, 노년기에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심리적 복지감이 향상되지 않았고 둘째, 가사활동, 자녀원조활동, 이웃 및 친구원조활동에의 참여는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활동과 친척원조활동에의 참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셋째, 참여수준은 어떤 유형의 생산적 활동이냐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종합하면 노년기에는 생산적 활동을 다양하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는 어떤 유형의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심리적 복지향상에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조사한 주경희[4]는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 그리고 자기개발참여활동 모두에서 참여활동의 양적 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헌신(지속기간, 활동 빈도 그리고 활동시간으로 측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한 김미혜·정진경은 자원봉사의 지속기간, 활동 빈도 그리고 활동시간 어느 것도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24].

## 2. 자아효능감

인간행동을 예측하고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인지개념으로 통제위치(locus of control)이론,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론, 그리고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이론 등의 주관적 통제감에 관한 인지개

념이 주목을 받아왔다[25]. 이들 중 자아효능감은 특정 상황에 자아가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대한 자기지각이기 때문에[26], 학생들의 학교적응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변인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실제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교사와 친구와의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27].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에도 자아효능감이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노인의 자아효능감과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밝혀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자아효능감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지각 즉, 특정 사항에 대해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서 어떤 행동과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 행동에 필요한 노력의 양과 노력의 지속정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인내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아효능감이 노인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가정할 수 있다.

자아효능감과 노인의 사회활동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응(학교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분용[28]은 경기남부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이 학생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추미애·박아청[2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황희숙·주희진[29]의 5, 6학년 영재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보고되었다. 이 밖에 자아효능감이 고객지향성과 직무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0], 교사의 자아효능감이 학교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1],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높으면 직무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 등이 있다[32].

## 3.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개인의 심리적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신체의 복지, 물리적 복지와 함께 개인의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표로, 전반적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또한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 행복감 또는 생활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감정을 의미하며[33] 안녕, 복지, 만족, 행복, 적응 및 사기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우울, 분노, 심리적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역기능을 연구하는 것과 긍정적 정서, 행복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신 건강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Marks[34]. 또한 심리적 복지는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정서적 측면이란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고독감이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말하며 인지적 측면으로는 삶 전반에 대한 판단인 생활만족을 말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긍정적 정서와 인지적 측면을 긍정적 차원으로 보고 부정적 정서를 부정적 차원으로 보는 경향이다.

그간 연구들 중 사회활동 모두에 시간과 에너지를 지원하며 생활하는 것이 퇴직 후 심리적 복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노인들이 소극적으로 적은 활동을 하는 노인들보다 사회 심리적으로 더 만족하고 노년기 생활에 더 원만히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Havighurst [35]와 사회활동과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로 적극적인 인생참여를 언급한 Rowe와 Kahn[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미술이나 음악 감상, 서예 등 단독 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단독 충실형, 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우인 교류형, 글을 쓰거나 독서를 즐기는 독서형,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참여형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36]. 한편 중소도시 종합복지관노인교실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프로그램의 참여유

형, 그리고 참여 후에 느끼는 심리 및 신체적 기능의 개선된 정도를 측정된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과 신체적 기능 모두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37].

백혜영[38]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하경분·송선희[3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40][41]. 그리고 여가활동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42][43], 백종욱[44]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여성 단체 활동자의 역할갈등은 중간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심리적 복지감은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단체 활동의 기간이 심리적 복지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45].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하여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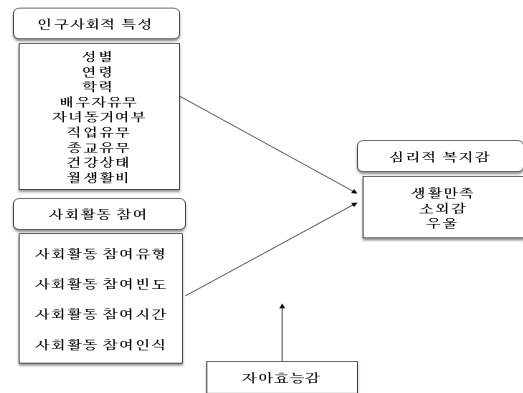


그림 3-1. 연구모형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400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값이 없는 총 39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각 문항의 빈포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 변수 중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빈도분석을 하였고, 중간척도로 측정된 사회활동 참여인식은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으로 문항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저 규칙이 있는 Varimax 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는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으로 확인하였다. 성별과 배우자 유무, 자녀동거여부, 직업유무,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고, 연령과 학력, 건강상태, 월생활비에 따른 차이는 ANOVA로 분석하면서 Scheffé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다섯째, 사회활동 참여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 3.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도시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166명(41.9%)이고, 여성은 230명(58.1%)으로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 연령은 60~64세 108명(27.3%), 65~69세 123명(31.1%), 70~74세 100명(25.3%), 75세 이상 65명(16.3%)로서 65~69세가 가장 높았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117명(29.5%), 중학교 졸업 100명(25.3%), 고등학교 졸업 122명(30.8%), 대학교 졸업이상 57명(14.4%)으로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학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유무와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268명(67.7%), 없는 노인이 128명(32.3%)이었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177명(44.7%),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219명(55.3%)으로서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이 더 높았다. 직업은 있는 노인이 127명(32.1%), 없는 노인이 269명(67.9%)이었고, 종교는 있는 노인이 275명(69.4%), 없는 노인이 121명(30.6%)이었다.

## 4. 설문지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의 설문지는 도시 노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사회활동, 사회활동 인식, 자아효능감,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인구 사회적 특성 중 사회적 활동의 유형과 참여빈도와 시간은 조용하[15]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사회활동 참여인식문항은 Weiss[46]의 사회참여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김수연[47]의 연구문항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아효능감은 Mahony[48]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서채원[49]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은 Bradbaum[50]이 개발한 척도를 조민자[51] 등이 사용한 것을 참고로 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터(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들 변인의 타당성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고유치 1.0이상, 요인부하량 0.5 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변수로 하였다. 신뢰성 분석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값이 0.6 이상일 때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을 나타낸다.

### 4.1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인식은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이 하나만 존재하여 단일요인으로 묶였다[표 3-1]. 이는 전체

분산의 63.325%를 설명하였으며, 사회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참여 자체에 대한 감사, 사회활동이 삶의 중요한 부분, 사회활동을 통한 친구관계 및 삶의 보람 등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신뢰도 검증값(Cronbach's α)이 0.972로 나타났으므로 측정변인에 대하여 매우 신뢰할 수 있다.

표 3-1. 사회활동 참여인식의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 계수
사회활동 참여인식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865	5.699	63.325	.927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833			
	사회적 활동은 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832			
	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생활함이 즐겁다.	.821			
	내 생활에서 사회 활동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	.815			
	사회적 활동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조언이나 격려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807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800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족에게 섭섭했거나 외로웠던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	.698			
	나에게는 일상생활에 관해 이야기할 이웃이나 친 구가 있다.	.670			

4.2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이 하나만 존재하여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표 3-2]. 전체 분산에서 62.038%를 설명하였고, 계획적 혹은 조직적인 일 처리,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력,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8문항으로 자아효능감이 구

성되었다.

신뢰성 분석에 따른 신뢰도 검증값(Cronbach's α)은 0.911로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여 측정변인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표 3-2. 자아효능감의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 계수
자아효능감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833	4.963	62.038	.911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818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815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하는 편이다.	.809			
	나는 위험상황에서 잘 대처 할 수 있다.	.790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770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일은 재미있는 일이다.	.757			
	나는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더 좋아한다.	.701			

4.3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은 고유치 1.0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고[표 3-3],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의 65.195%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소외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주변에서 나를 잘 이해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음, 소외감을 자주 느낌,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하거나 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음, 대인관계의 깊이가 없음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생활만족'으로 명명하였고,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함,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있음, 지난 평생이 성공적임,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함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우울'로 명명하였고, 요즘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음,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음, 화나는 일이 점점 많아짐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성 분석에 따른 신뢰도 검증값(Cronbach's α)이 각각 0.926, 0.876, 0.881로 나타났으므로 측정변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다.

표 3-3. 심리적 복지감의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계수
소외감	주변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786	5.355	28.183	.926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780			
	나는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755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	.755			
	나에게는 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	.728			
	나의 대인관계는 사무적이고 깊이가 없다	.727			
	나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다	.718			
주변의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679				
생활만족	요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795	4.200	50.286	.876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774			
	요즘 나는 살맛이 난다	.771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다	.714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673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670			
우울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잡한 편이다	.598	2.833	65.195	.881
	요즘을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766			
	요즘을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749			
	요즘을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 진다	.680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655			

순소일활동, 감성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 문화활동을 106명(26.8%)이 응답하여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활동 103명(26.0%), 가족공동체활동 92명(23.2%), 단 순소일활동 71명(17.9%)의 순이었으며, 감성활동은 24명(6.1%)으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빈도는 1개월에 1~2번이 117명(29.5%)으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1~2번 87명(22.0%), 1년에 1~2번 73명(18.4%)이었으며, 거의 매일 참여하는 경우가 39명(9.9%)이었다. 사회활동 참여시간은 1~2시간 정도가 162명(40.9%)으로 가장 높았으며, 1시간미만 120명(30.3%), 3~4시간 정도 92명(23.2%), 5시간 이상 22명(5.6%)의 순이었다. 이처럼 1개월에 1~2번 이상으로 사회활동 참여빈도가 높고 1~2시간 이상 참여하는 응답자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4-1. 연구대상의 사회활동 참여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참여 유형	교육문화활동 (평생학습, 취미, 클럽활동, 레포츠 등)	106	26.8
	가족공동체활동 (손자녀돌보기, 집안가꾸기 등)	92	23.2
	사회단체활동 (자원봉사, 종교단체, 사교단체, 친목 등)	103	26.0
	단순소일활동 (TV, 영화보기, 신문·잡지보기 등)	71	17.9
	감성활동 (묵상, 걷기, 쓰기, 글짓기 등)	24	6.1
참여 빈도	거의 안함	80	20.2
	1년에 1~2번	73	18.4
	1개월에 1~2번	117	29.5
	일주일에 1~2번	87	22.0
	거의 매일	39	9.9
참여 시간	1시간 미만	120	30.3
	1~2시간 정도	162	40.9
	3~4시간 정도	92	23.2
	5시간 이상	22	5.6

#### IV. 연구결과

##### 1. 사회활동참여

연구대상의 사회활동 참여는 명목척도로 구성된 참여유형과 빈도 및 시간을 빈도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펴 보았고[표 4-1], 사회활동 참여인식은 등간척도로 조사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표 4-2]. 사회활동 참여유형을 교육문화활동, 가족공동체활동, 사회단체활동, 단

##### 2.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차이

연구대상의 사회활동 참여인식은 전체 평균이 3.566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인식을 구성하는 문항 중 '사회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생활함이 즐겁다'가 3.679로 가장 높았고, '사회생활을 통해 가족에게 섭섭했거나 외로웠던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3.4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사회활동의 참여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 연구대상의 사회활동 참여인식

구 분	평균(M)	표준 편차 (SD)
사회활동 참여인식 전체	3.566	.731
나에게는 일상생활에 관해 이야기할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	3.626	.858
내 생활에서 사회활동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	3.480	.923
앞으로도 계속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3.561	.922
사회활동을 통해 가족에게 섭섭했거나 외로웠던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	3.419	.974
사회활동은 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3.558	.930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3.540	.986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3.654	.868
사회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생활함이 즐겁다	3.679	.914
사회활동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조언이나 격려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3.576	.912

### 3.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이용한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직업 유무, 종교 유무는 모집단이 2개일 때 사용하는 t-test로 분석하였고, t검증에 의한 유의도 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연령과 학력, 건강상태, 월생활비는 3개 이상의 집단일 때 사용하는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사후비교를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생활만족, 소외감,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먼저 생활만족에 대한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F=9.838, p<.001), 학력(F=7.361, p<.001), 배우자유무(t=4.469, p<.001), 건강상태(F=12.469, p<.001), 월생활비(F=6.516, p<.001)이었고, 성별, 자녀동거여부, 직업유무, 종교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생활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60~64세와 65~69세 집단과 가장 낮게 나타난 75세 이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가장 높게 나타난 대학교 졸업이상 집단과는 생활만족에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생활만족이 더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은 집단이 나쁘거나 매우 나쁜 집단보다 생활만족이 더 높았다.

월생활비에서는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집단과 300만원 이상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외감에 대한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F=8.188, p<.001), 학력(F=11.731, p<.001), 배우자유무(t=-5.860, p<.001), 직업유무(t=-2.110, p<.05), 건강상태(F=19.719, p<.001), 월생활비(F=14.366, p<.001)이었고, 성별, 자녀동거여부, 종교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소외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75세 이상 집단과 가장 낮은 소외감을 보인 60~64세, 65~69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 초등학교 졸업이하와 중학교 졸업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집단과 가장 높게 나타난 대학교 졸업이상 집단과는 소외감의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와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소외감이 더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보통이상의 집단보다 소외감이 더 높았다.

월생활비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집단이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200만원 이상에 비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소외감이 더 높았다.

우울에 대한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F=6.383, p<.001), 학력(F=6.541, p<.001), 배우자유무(t=-5.054, p<.001), 직업유무(t=-2.410, p<.05), 건강상태(F=14.490, p<.001), 월생활비(F=6.758, p<.001)이었고, 성별, 자녀동거여부, 종교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난 75세 이상 집단과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60~64세, 65~69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와 중학교 졸업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집단과 대학교 졸업이상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와 직업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우울이 더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를 지닌 집단보다 우울이 더 높았다.

월생활비에서는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 집단이 300만원 이상 집단에 비해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차이의 분석 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을 뿐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고 월생활비가 많은 집단에서 생활만족은 높으나 소외감과 우울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요인인 생활만족과 소외감, 우울에 공통적인 차이를 나타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월 생활비로 밝혀졌다.

표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차이

구분	생활만족			소외감			우울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n=166)	3.282	.718	.977	2.067	.859	-1.448	2.151	.873	-.178
	여성(n=230)	3.212	.690		2.192	.837		2.166	.864	
연령	60-64세(n=108)	3.407	.767	9.838***	1.895	.821	8.188***	1.977	.783	6.383***
	65-69세(n=123)	3.366	.636		2.086	.855		2.047	.870	
	70-74세(n=100)	3.131	.591		2.225	.823		2.280	.871	
	75세이상(n=65)	2.901	.730		2.515	.779		2.492	.884	
학력	초졸이하(n=117)	3.099	.707	7.361***	2.366	.801	11.731***	2.306	.843	6.541***
	중졸(n=100)	3.154	.644		2.309	.866		2.335	.880	
	고졸(n=122)	3.287	.665		1.998	.795		2.037	.834	
	대졸이상(n=57)	3.591	.751		1.680	.794		1.816	.838	
배우자유무	있음(n=268)	3.348	.671	4.469***	1.974	.806	-5.860***	2.012	.835	-5.054***
	없음(n=128)	3.019	.715		2.486	.831		2.469	.854	
자녀동거여부	동거함(n=177)	3.278	.736	.937	2.134	.842	-1.113	2.144	.872	-3.323
	동거안함(n=219)	3.212	.673		2.144	.854		2.172	.864	
직업유무	있음(n=127)	3.305	.777	1.231	1.989	.840	-2.110*	2.008	.834	-2.410*
	없음(n=269)	3.212	.663		2.211	.843		2.231	.874	
종교유무	있음(n=275)	3.258	.667	.682	2.137	.826	-.079	2.143	.863	-5.588
	없음(n=121)	3.205	.777		2.145	.898		2.198	.877	
건강상태	매우나쁨(n=20)	3.036	.899	12.469***	2.369	.841	19.719***	2.113	.833	14.490***
	나쁜편(n=91)	2.934	.757		2.668	.795		2.657	.857	
	보통(n=134)	3.214	.621		2.038	.776		2.099	.860	
	좋은편(n=127)	3.408	.615		1.991	.794		2.012	.756	
	매우 좋음(n=24)	3.851	.537		1.297	.522		1.438	.618	
월 생활비	100만미만(n=185)	3.168	.682	6.516***	2.365	.798	14.366***	2.303	.801	6.758***
	100-200만(n=123)	3.170	.701		2.097	.883		2.163	.886	
	200-300만(n=44)	3.351	.573		1.923	.754		2.028	.891	
	300만이상(n=44)	3.643	.772		1.528	.663		1.682	.888	

\*p<.05, \*\*\*p<.001, A, B, C는 scheff 검증결과를 나타냄(A)B)C).

4. 사회활동참여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고, 성별(남성=0, 여성=1)과 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자녀동거여부(안한다=0, 한다=1), 직업유무(없다=0, 있다=1), 종교유무(없다=0, 있다=1)는 더미변수화하였다. 둘째,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활동 참여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인 중에서 사회활동 참여유형은 감성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더미변수화하였으며, 투입변수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확인한 후 이 값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태지수(CI, condition index)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VIF=1.048~1.616)와 2단계

(VIF=1.098~4.651) 모두 VIF가 10이하를 나타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심리적 복지감이 생활만족, 소외감, 우울의 3개 하위요인을 갖고 있으므로 각 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1 사회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2%였고,  $F=8.301$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생활만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직업유무( $t=1.986, p<.05$ )와 건강상태( $t=4.938, p<.001$ )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연령( $t=-3.131, p<.0$ )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표 4-4.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통제변인							
성별(여성=1)		.012	.008	.161	.033	.023	.497
연령		-.116	-.173	-3.131**	-.086	-.129	-2.574*
학력		.026	.039	.658	.017	.026	.474
배우자유무(있다=1)		.151	.101	1.869	.085	.057	1.192
자녀동거여부(한다=1)		.031	.022	.454	.084	.060	1.407
직업유무(있다=1)		.167	.111	1.986*	.189	.126	2.573*
종교유무(있다=1)		.055	.036	.755	.010	.006	.152
건강상태		.174	.247	4.938***	.122	.172	3.766***
월생활비		.063	.089	1.604	.007	.010	.205
독립변인							
사회활동참여유형1(교육문화활동=1) <sup>a</sup>					.101	.064	.729
사회활동참여유형2(가족공동체활동=1) <sup>a</sup>					.157	.094	1.125
사회활동참여유형3(사회단체활동=1) <sup>a</sup>					-.020	-.012	-.147
사회활동참여유형4(단순소일활동=1) <sup>a</sup>					.070	.038	.508
참여빈도					.017	.030	.557
참여시간					.003	.004	.075
참여인식					.517	.539	10.324***
F				8.301***			14.546***
R <sup>2</sup>				.162			.380
$\Delta R^2$							.218

\* $p<.05$ , \*\* $p<.01$ , \*\*\* $p<.001$ , <sup>a</sup>사회활동 참여유형의 경우 감성활동이 기준

생활만족이 더 높아졌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더 낮아진다고 하겠다. 특히 건강상태( $\beta=.247$ )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므로 노인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8.0%로 1단계보다 21.8%가 증가되었고,  $F=14.546$ 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직업유무( $t=2.573, p<.05$ )와 건강상태( $t=3.766, p<.001$ )가 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연령( $t=-2.574, p<.05$ )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인식( $t=10.324, p<.001$ )이 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생활만족에 대한 회귀계수의 영향력은 사회활동 참여인식( $\beta=.539$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활동참여유형과 참여빈도 그리고 참여시간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혜·정진경[2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윤순덕·한경혜[16]의 연구와 주경희[4]의 연구 결과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 4.2 사회활동 참여가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가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2.3%였고,  $F=12.333$ 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소외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유무( $t=-2.890, p<.01$ )와 건강상태( $t=-5.499, p<.001$ ), 월생활비( $t=-3.784, p<.001$ )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월생활비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더 낮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건강상태( $\beta=-.265$ )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므로

표 4-5. 사회활동 참여가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통제변인							
성별(여성=1)		.066	.038	.762	.071	.042	.925
연령		.085	.105	1.968	.070	.086	1.783
학력		-.030	-.037	-.645	-.004	-.005	-.098
배우자유무(있다=1)		-.271	-.150	-2.890**	-.212	-.117	-2.541*
자녀동거여부(한다=1)		-.134	-.079	-1.699	-.185	-.108	-2.641**
직업유무(있다=1)		-.110	-.061	-1.126	-.137	-.076	-1.597
종교유무(있다=1)		-.030	-.016	-.357	.036	.020	.479
건강상태		-.226	-.265	-5.499***	-.182	-.213	-4.811***
월생활비		-.172	-.203	-3.784***	-.110	-.130	-2.680**
독립변인							
사회활동참여유형1(교육문화활동=1) <sup>a</sup>					-.321	-.168	-1.989*
사회활동참여유형2(가족공동체활동=1) <sup>a</sup>					.212	.106	1.303
사회활동참여유형3(사회단체활동=1) <sup>a</sup>					-.443	-.229	-2.791**
사회활동참여유형4(단순소일활동=1) <sup>a</sup>					.291	.132	1.804
참여빈도					-.011	-.016	-.301
참여시간					-.041	-.042	-.804
참여인식					-.580	-.501	-9.902***
F			12.333***			17.052***	
R <sup>2</sup>			.223			.419	
$\Delta R^2$						.196	

\* $p<.05$ , \*\* $p<.01$ , \*\*\* $p<.001$ , <sup>a</sup>사회활동 참여유형의 경우 감성활동이 기준

노인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소외감이 특히 낮아진다고 할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9%로 1단계보다 19.6% 증가되었고,  $F=17.052$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배우자유무( $t=-2.541, p<.05$ )와 자녀동거여부( $t=-2.641, p<.01$ ), 건강상태( $t=-4.811, p<.001$ ), 월생활비( $t=-2.680, p<.01$ )가 소외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활동 참여 중에서는 교육문화활동( $t=-1.989, p<.05$ ), 사회단체활동( $t=-2.791, p<.01$ ), 사회활동 참여 인식( $t=-9.902, p<.001$ )이 소외감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즉, 교육문화활동과 사회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인식이 더 낮아지고 있었다.

소외감에 대한 회귀계수의 영향력은 사회활동 참여

인식( $\beta=-.501$ )에서 가장 높았으며, 노년기의 소외감에는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17-20].

그리고 교육문화활동과 사회단체활동 등이 소외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노년기에는 생산적 활동을 다양하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는 어떤 유형의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심리적 복지향상에 더 중요하다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윤순덕·한경혜 [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4.3 사회활동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8%였고,  $F=7.452$ 로  $p<.001$  수

표 4-6. 사회활동 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통제변인							
성별(여성=1)		.163	.093	1.765	.131	.075	1.524
연령		.071	.085	1.529	.055	.066	1.250
학력		-.007	-.008	-.134	.009	.011	.194
배우자유무(있다=1)		-.294	-.159	-2.928**	-.222	-.120	-2.386*
자녀동거여부(한다=1)		-.099	-.057	-1.168	-.159	-.091	-2.042*
직업유무(있다=1)		-.011	-.006	-.107	.001	.001	.014
종교유무(있다=1)		-.056	-.030	-.620	.001	.000	.007
건강상태		-.195	-.223	-4.433***	-.152	-.174	-3.599***
월생활비		-.103	-.120	-2.127*	-.059	-.068	-1.287
독립변인							
사회활동참여유형1(교육문화활동=1) <sup>a</sup>					-.156	-.080	-.870
사회활동참여유형2(가족공동체활동=1) <sup>a</sup>					.010	.005	.053
사회활동참여유형3(사회단체활동=1) <sup>a</sup>					-.226	-.115	-1.279
사회활동참여유형4(단순소일활동=1) <sup>a</sup>					.147	.065	.818
참여빈도					-.065	-.095	-1.640
참여시간					-.149	-.150	-2.649**
참여인식					-.508	-.428	-7.782***
F				7.452***			10.654***
R <sup>2</sup>				.148			.310
$\Delta R^2$							.162

\* $p<.05$ , \*\* $p<.01$ , \*\*\* $p<.001$ , <sup>a</sup>사회활동 참여유형의 경우 감성활동이 기준

준에서 유의하였다. 우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유무( $t=-2.928, p<.01$ )와 건강상태( $t=-4.433, p<.001$ ), 월생활비( $t=-2.127, p<.05$ )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을 뿐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고 월생활비가 높을수록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더 낮아진다고 하겠다. 특히 우울에 대해 건강상태( $\beta=-.223$ )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므로 노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우울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1.0%로 1단계보다 16.2% 증가하였고,  $F=10.654$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배우자유무( $t=-2.386, p<.05$ )와 자녀동거여부( $t=-2.042, p<.05$ )와 건강상태( $t=-3.599, p<.001$ )가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활동 참여에서는 참여시간( $t=-2.649, p<.01$ )과 참여인식( $t=-7.782, p<.001$ )이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고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우울감의 인식이 더 낮아지고 있었다. 우울감에 대한 회귀계수의 영향력은 사회활동 참여인식( $\beta=-.428$ )에서 가장 높았으므로 노년기의 우울을 낮추는데 있어서는 사회활동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생활만족, 소외감, 우울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에는 사회활동 참여인식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소외감에는 교육문화활동, 사회단체활동, 사회활동 참여인식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셋째, 우울에는 사회활동 참여시간과 참여인식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4.4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복지감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심리적 복지감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 및 자아효능감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사회활동 참여와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중속변수인 심리적 복지감이 생활만족, 소외감, 우울의 3개 하위요인을 갖고 있어 각 요인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투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한 결과 VIF가 1단계 1.104~2.091, 2단계 1.132~4.748로서 10이하를 나타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4.4.1 사회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만족 간에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 자아효능감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4.6%였으며,  $F=26.709$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유무( $t=2.746, p<.01$ ), 종교유무( $t=2.039, p<.05$ ), 건강상태( $t=2.978, p<.01$ ), 사회활동 참여인식( $t=5.954, p<.001$ ), 자아효능감( $t=11.726, p<.001$ )으로 나타났고,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과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아지고 있었다.

사회활동 참여와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6.4%로 1단계보다 1.8% 증가하였고,  $F=20.032$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연령( $t=-2.257, p<.05$ )은 생활만족에 부(-)의 영향을, 직업유무( $t=2.876, p<.01$ ), 종교유무( $t=2.112, p<.05$ ), 건강상태( $t=2.698, p<.001$ )가 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활동 참여 중에서 사회활동 참여인식( $t=5.674, p<.001$ )이 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효능감( $t=4.700, p<.001$ )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활동 참여와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항에서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지 않았으므로 자아효능감은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만족 간의 영향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하겠다.

표 4-7.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만족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통제변인							
성별(여성=1)		.082	.058	1.443	.076	.054	1.350
연령		-.052	-.077	-1.795	-.066	-.098	-2.257*
학력		.003	.004	.084	.018	.027	.567
배우자유무(있다=1)		.012	.008	.193	.009	.006	.144
자녀동거여부(한다=1)		.043	.031	.844	.046	.033	.894
직업유무(있다=1)		.173	.115	2.746**	.181	.120	2.876**
종교유무(있다=1)		.114	.075	2.039*	.118	.078	2.112*
건강상태		.083	.118	2.978**	.075	.106	2.698**
월생활비		.019	.027	.635	.031	.044	1.023
독립변인							
사회활동참여유형1(교육문화활동=1) <sup>a</sup>		.029	.018	.244	-.009	-.006	-.078
사회활동참여유형2(가족공동체활동=1) <sup>a</sup>		.181	.109	1.517	.144	.087	1.211
사회활동참여유형3(사회단체활동=1) <sup>a</sup>		.134	.084	1.143	.094	.059	.806
사회활동참여유형4(단순소일활동=1) <sup>a</sup>		.147	.080	1.241	.125	.068	1.036
사회활동 참여빈도		.009	.016	.346	.016	.029	.614
사회활동 참여시간		.000	.000	.009	.004	.006	.121
사회활동 참여인식		.282	.294	5.954***	.276	.288	5.674***
자아효능감		.478	.511	11.726***	.672	.718	4.700***
교육문화활동*자아효능감					-.071	-.041	-.446
가족공동체활동*자아효능감					.305	.155	1.961
사회단체활동*자아효능감					-.298	-.164	-1.873
단순소일활동*자아효능감					.184	.076	1.128
사회활동 참여빈도*자아효능감					.055	.073	1.417
사회활동 참여시간*자아효능감					.027	.028	.572
사회활동 참여인식*자아효능감					.053	.051	.947
F			26.709***			20.032***	
R <sup>2</sup>			.546			.564	
$\Delta R^2$						.018	

\* $p < .05$ , \*\* $p < .01$ , \*\*\* $p < .001$ , <sup>a</sup>사회활동 참여유형의 경우 감성활동이 기준

4.4.2 사회참여활동과 소외감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 효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외감 간에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 자아효능감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8%였으며,  $F=18.015$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유무 ( $t=-1.983, p < .05$ ), 자녀동거여부( $t=-2.398, p < .05$ ), 건강

상태( $t=-4.369, p < .001$ ), 월생활비( $t=-2.895, p < .01$ ), 사회단체활동( $t=-2.343, p < .05$ ), 사회활동 참여인식( $t=-7.310, p < .001$ ), 자아효능감( $t=-4.455, p < .001$ )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활동을 하면서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과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아지고 있었다.

사회활동 참여와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6.5%로 1단계보다 1.7% 증가하였고,  $F=13.448$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

표 4-8. 사회활동 참여와 소외감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변인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통제변인						
성별(여성=1)	.096	.056	1.273	.117	.068	1.546
연령	.053	.065	1.365	.049	.061	1.269
학력	-.014	-.017	-.341	-.024	-.030	-.567
배우자유무(있다=1)	-.163	-.090	-1.983*	-.196	-.108	-2.367*
자녀동거여부(한다=1)	-.164	-.096	-2.398*	-.164	-.096	-2.354*
직업유무(있다=1)	-.129	-.071	-1.539	-.125	-.069	-1.482
종교유무(있다=1)	-.089	-.048	-1.192	-.085	-.046	-1.135
건강상태	-.163	-.190	-4.369***	-.160	-.187	-4.289***
월 생활비	-.116	-.137	-2.895**	-.105	-.124	-2.597*
독립변인						
사회활동참여유형1(교육문화활동=1) <sup>a</sup>	-.256	-.134	-1.614	-.259	-.135	-1.635
사회활동참여유형2(가족공동체활동=1) <sup>a</sup>	.200	.100	1.257	.168	.084	1.056
사회활동참여유형3(사회단체활동=1) <sup>a</sup>	-.365	-.189	-2.343*	-.337	-.175	-2.152*
사회활동참여유형4(단순소일활동=1) <sup>a</sup>	.252	.114	1.599	.194	.088	1.200
사회활동 참여빈도	-.007	-.010	-.193	-.002	-.003	-.060
사회활동 참여시간	-.042	-.043	-.854	-.050	-.052	-1.017
사회활동 참여인식	-.461	-.398	-7.310***	-.507	-.437	-7.776***
자아효능감	-.242	-.214	-4.455***	-.101	-.089	-.526
교육문화활동*자아효능감				-.215	-.103	-1.015
가족공동체활동*자아효능감				-.120	-.050	-.576
사회단체활동*자아효능감				-.081	-.037	-.382
단순소일활동*자아효능감				-.198	-.068	-.907
사회활동 참여빈도*자아효능감				-.004	-.004	-.070
사회활동 참여시간*자아효능감				.096	.080	1.490
사회활동 참여인식*자아효능감				-.183	-.146	-2.453*
F	18.015***			13.448***		
R <sup>2</sup>	.448			.465		
ΔR <sup>2</sup>				.017		

\*p<.05, \*\*p<.01, \*\*\*p<.001, <sup>a</sup>사회활동 참여유형의 경우 감성활동이 기준

었다.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배우자유무(t=-2.367, p<.05), 자녀동거여부(t=-2.354, p<.05), 건강상태(t=-4.289, p<.001), 월생활비(t=-2.597, p<.05)가 소외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활동 참여 중에서 사회단체활동(t=-2.152, p<.05), 사회활동 참여인식(t=-7.776, p<.001)이 소외감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소외감에 대한 자아효능감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활동 참여인식과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항

(t=-2.453, p<.05)이 소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자아효능감이 사회활동 참여인식과 소외감 사이를 조절하고 있었다. 즉,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인식으로 인해 소외감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4.3 사회활동참여와 우울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 간에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 자아효능감을 투입한 1단계



표 4-9.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통제변인							
성별(여성=1)		.153	.087	1.804	.163	.093	1.923
연령		.039	.047	.903	.030	.036	.691
학력		-.018	-.022	-.388	-.030	-.036	-.630
배우자유무(있다=1)		-.178	-.096	-1.927	-.201	-.109	-2.155*
자녀동거여부(한다=1)		-.141	-.081	-1.830	-.153	-.088	-1.953
직업유무(있다=1)		-.006	-.003	-.062	.006	.003	.066
종교유무(있다=1)		.048	.025	.568	.030	.016	.361
건강상태		-.134	-.154	-3.210**	-.139	-.159	-3.323**
월생활비		-.064	-.074	-1.425	-.048	-.055	-1.050
독립변인							
사회활동참여유형1(교육문화활동=1) <sup>a</sup>		-.098	-.050	-.550	-.098	-.050	-.553
사회활동참여유형2(가족공동체활동=1) <sup>a</sup>		-.001	-.001	-.008	-.035	-.017	-.197
사회활동참여유형3(사회단체활동=1) <sup>a</sup>		.157	.079	.895	.145	.073	.821
사회활동참여유형4(단순소일활동=1) <sup>a</sup>		.112	.050	.634	.033	.014	.180
사회활동 참여빈도		-.069	-.100	-1.756	-.074	-.107	-1.861
사회활동 참여시간		-.150	-.151	-2.713**	-.163	-.164	-2.926**
사회활동 참여인식		-.402	-.339	-5.664***	-.460	-.389	-6.289***
자아효능감		-.216	-.187	-3.534***	-.380	-.329	-1.766
교육문화활동*자아효능감					-.213	-.100	-.897
가족공동체활동*자아효능감					-.187	-.077	-.801
사회단체활동*자아효능감					-.223	-.099	-.931
단순소일활동*자아효능감					.008	.003	.034
사회활동 참여빈도*자아효능감					.018	.019	.309
사회활동 참여시간*자아효능감					.070	.057	.970
사회활동 참여인식*자아효능감					-.271	-.211	-3.225**
F			11.066***			8.459***	
R <sup>2</sup>			.332			.354	
$\Delta R^2$						.022	

\* $p < .05$ , \*\* $p < .01$ , \*\*\* $p < .001$ , <sup>a</sup>사회활동 참여유형의 경우 감성활동이 기준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3.2%였으며,  $F=11.066$ 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t=-3.210$ ,  $p < .01$ ), 사회활동 참여시간( $t=-2.713$ ,  $p < .01$ ), 사회활동 참여인식( $t=-5.664$ ,  $p < .001$ ), 자아효능감( $t=-3.534$ ,  $p < .001$ )으로 나타났고, 사회활동 참여시간이 많으면서 사회활동 참여인식과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있었다. 사회활동 참여와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35.4%로 1단계보다 2.2% 증가하였고,  $F=8.459$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통제변인인 인

구사회학적 특성의 배우자유무( $t=-2.155$ ,  $p < .05$ ), 건강상태( $t=-3.323$ ,  $p < .01$ )가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활동 참여 중에서는 사회활동 참여시간( $t=-2.926$ ,  $p < .01$ ), 사회활동 참여인식( $t=-6.289$ ,  $p < .001$ )이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우울에 대한 자아효능감의 영향력은 분석되지 않았다. 사회활동 참여인식과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항( $t=-3.225$ ,  $p < .01$ )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자아효능감은 사회활동 참여인식과 우울 사이를 조절하고 있었다. 즉,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인식으로

인해 우울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와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생활만족, 소외감, 우울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만족 간에는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와 소외감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사회활동 참여인식과 소외감 사이에서 나타났다. 셋째,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사회활동 참여인식과 소외감 사이에서 나타났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노인의 사회활동과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개인의 사회활동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활동참여유형은 교육문화활동, 사회단체활동, 가족공동체활동, 단순소일활동, 그리고 감성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인들의 활동참여 정도는 교육문화활동(26.8%), 사회단체활동(26.0%), 가족공동체활동(23.2%), 단순소일활동(17.9%), 그리고 감성활동(6.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감성활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은 ‘노년기에는 생산적 활동을 다양하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는 어떤 유형의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심리적 복지향상에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16]를 고려해 볼 때, 노인들에게 감성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인식 수준은 3.566(5점 만점)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사회참여인식은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생활만족, 소외감, 우울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는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직업유무, 건강상태, 그리고 월생활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직업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이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만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인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만족이 낮다는 결과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로부터 격리될 기회가 높고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인식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활동참여와 소외감 간의 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고, 월 생활비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고, 교육문화활동과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활동참여인식이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활동참여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와 동거하고, 건강상태가 좋고, 사회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참여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일곱 번째,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은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요인인 소외감과 우울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낮은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의 문제점은 정보의 부족, 활동분야의 부족, 연령제한, 자신감부족 등도 있을 것이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양한 정보 및 참여유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과 지원등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2] J. Rowe and R.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37, pp.433-441, 1997.
- [3] B. Sarah, Laditka, "Attitudes about aging well among a diverse group of older American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gnitive health," *The Gerontologist*, Vol.9, No.S1, pp.S30-s39, 2009.
- [4] 주경희, "사회참여 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성별과 연령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2호, pp.5-39, 2011.
- [5] 이현심, 남희수, "농촌 노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여주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제4호, pp.957-984, 2010.
- [6] 남기민, 박현주,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49호, pp.405-428, 2010.
- [7] 통계청, 2011, 2011년 사회조사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 [8] E. B. Palmore, *Social pattern in normal aging*, Durham, N. C : Duke University Press., 1981.
- [9] 황종남, 권순만, "중·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능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Vol.29, No.3, pp.971-986, 2009.
- [10] 조추용,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22, pp.7-34, 2004.
- [11] Merrill Siverstein and Marti G. Parker, "Leisur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est old in Sween," *Research on Aging*, Vol.24, p.528, 2002.
- [12] 박미석, 이유리, "한국노인의 여가활동 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1, No.1, pp.37-48, 2003.
- [13] 김진옥, "한국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년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Vol.32, pp.149-177, 2006.
- [14] 이소정, 정경희, 이운경, 유삼현,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15) 조용하, 2004,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5] 조용하,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16] 윤순덕, 한경혜, "농촌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제24권, 제2권, pp.55-77, 2004.
- [17]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18] 김주현, 한경혜,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제21권, 제2호, pp.209-224, 2001.
- [19] 김영길,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0] 유향숙, "종교활동 참여가 노년기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기독교인 중심으로", *한국상담치료학회지*, Vol.3, No.1, pp.31-45, 2012.
- [21] 이진희, 김옥, "노인교육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Vol.28, No.4, pp.887-905, 2008.
- [22] 이종경, 이은주, "노인의 여가스포츠활동 참가가와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감소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Vol.34, No.3, pp.17-26, 2010.
- [23] 김영미, 한혜원, "노인의 생활무용참가가 건강상태와 사회적 역할활동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Vol.24, pp.1-16, 2011.
- [24] 김미혜, 정진경,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 로-”, 한국사회복지학, Vol.54, pp.221-243, 2003.
- [25] 현정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관한 연구 동향과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pp.81-97, 1993.
- [26] A. Bandur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y*, Vol.37, pp.122-147, 1982.
- [27] 추미애, 박아정,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 동기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아동교육, 제15권, 제2호, pp.271-288, 2006.
- [28] 구본용,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관계에서 부모, 교사, 또래관계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3호, pp.347-373, 2012.
- [29] 황희숙, 주희진, “초등 영재아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연구, 제11권, 제4호, pp.525-545, 2011.
- [30] 서병우, “선배직원이 인턴사원의 자아효능감, 조직적응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제2권, 제2호(통권 4호), pp.21-36, 2013.
- [31] 김지연, “초등학교장의 감성지능과 교사의 자아효능감, LMX의 질 그리고 학교조직유효성과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7, No.2, pp.205-227, 2010.
- [32] 조강해, 노형봉, “자아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집단효능감의 매개변수 역할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4호, pp.175-188, 2013.
- [33] R. Veenhoven,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24, pp.1-34, 1991.
- [34] N. F. Marks, “Flying solo in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8, No.4, pp.917-932, 1996.
- [35] R. J. Havighurst, B. N. Neugarten, and S. S. Tobin, “Disengagement and pattern of aging,” In B. 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36] 백경숙, 권용신,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35호, pp.87-106, 2007.
- [37] 조용란, 이인수, “노인교실 예술활동 프로그램의 참여유형과 효과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제9권, 제1호, pp.23-49, 2013.
- [38] 백혜영, “노인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8집, 제4호, pp.73-92, 2012.
- [39] 하경분, 송선희,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보기감과의 관계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7, pp.278-289, 2013.
- [40] 정원철, 박선희,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Vol.13, No.12, pp.235-245, 2013.
- [41] 김강호,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효과 : 도농간 비교”,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42, No.2, pp.81-97, 2010.
- [42] 이정화, 한경혜,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제13집, 제1호, pp.209-238, 2003.
- [43] 고용기, 최석환, 황성우, “중년세대의 여가활동 참여동기가 사회적 지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9권, 제4호, pp.383-396, 2010.
- [44] 백종욱, 김성오, 김미양,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임상사회사업연구, Vol.7, No.1, pp.37-58, 2010.
- [45] 이영석, 최외선, “여성단체활동자의 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1호, pp.201-218, 2011.
- [46] R. S. Weiss,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 In Zick Rubin(Ed.), *Doing unto others*,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 J. 1974,
- [47] 김수연, 도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8] M. J. Mahony, "Psychological predictors of elite and non elite performance in olympic weightlif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Psychology, Vol.20, No.1, pp.1-12, 1988.

[49] 서채원, 노인 생활체육활동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50] N. M. Bradbau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ldine Pub Co. Chicao, IL. 1969.

[51] 조민자, 노인 여가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저 자 소 개

이 의 결(Eui-Girl Lee)

정회원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 노인심리, 노인상담

조 성 숙(Sung-Sook Cho)

정회원



- 1975년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경제학사)
- 1982년 : 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석사
- 1987년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경제학박사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노인심리, 노인상담